



‘너랑 나랑 춤’ 신나네 제12회 추석의 중장축제가 한창인 8일 오후 광주시 동구 금남로 3가에서 축제 참가자들이 ‘너랑 나랑 춤’을 추고 있다. ‘너랑 나랑 춤’은 축제 기간인 오는 11일까지 매일 오후 6시 금남로와 충장로 일대 모든 축제장에서 동시에 이뤄진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근로정신대 할머니들 나고야 방문 한·일 시민단체와 소송 대책 논의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일본을 방문, 한·일 시민단체들과 함께 앞으로 활동방향을 논의한다.  
8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현재 한국 대법원에 계류 중인 손해배상 소송 원고 양금덕, 이동연, 김성주 할머니와 김종근 할아버지 등 4명과 시민단체 회원 등 22명이 9~11일 일본 나고야를 방문한다. 원고 5명 중 한 명인 박해옥 할머니는 건강상 문제로 참석하지 못한다.  
이번 행사는 1999~2008년 일본에서 진행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원해온 일본 단체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 변호인단’ 주최로 마련됐다.  
이들 단체는 “양금덕 할머니 등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의 건강이 더 나빠지기 전에 일본으로 모시고 싶었다”고 밝혔다. 방문단은 10일 오전 옛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제작소 공장 터 인근에 있는 ‘도나키이 지진’ 희생자 추도 기념비를 찾아 헌화할 예정이다. 또 한·일 7개 시민단체 관계자 160여명과 함께 강제동원 보상 운동 현황을 점검한다.  
특히, 이들은 일본정부와 일본 피고 기업 측에 ‘상고를 속히 취하하고 고법으로 판결을 따를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호소문을 채택할 계획이다.  
손해배상 소송 원고들은 2012년 10월 광주지법에 소송을 제기해 2013년 1심에서 승소했고, 지난 6월 광주고법에서 열린 2심에서도 승소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의료급여 관리 소홀... ‘의료 쇼핑’ 부추긴다

#### 광주 구청들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 형식적 서면 심사 신청자 대부분 통과...연간 2000일 사용 등 혈세 낭비

지자체의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 소홀이 사소한 질환으로 병원 4~5곳을 오가며 진료를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을 부추기고 있다.  
자치구의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 심사가 서면 등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연간 2000일이 넘는 급여일수를 사용하는 수급자도 있는 상황이다.  
8일 광주시와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 신청 건수는 지난 2011년 1만4107건에서 지난해 1만8083건으로 22% 증가했다.  
지난 2013년에는 무려 2만4638건을 기록하는 등 고령인구가 늘어나면서 증가하

고 있는 추세다.  
의료급여는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8월 말 현재 7만465명이 광주에서 의료급여 혜택을 받고 있으며 올해 예산은 모두 2411억원이 책정돼 있다.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은 연간 365일 이상 진료를 받은 의료급여 수급자가 의사의 소견서 등을 첨부해 지자체에 급여일수를 늘려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하지만 광주 5개 자치구의 경우 수급자들의 민원 등을 우려해 ‘우선 승인하고 보자’며 급여일수 연장승인을 날림으로 하는 등 예산 관리가 소홀한 상황이다.

지난해의 경우 광주 5개 자치구가 모두 1만8083건의 연장승인 신청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지만 이 중 ‘불승인’을 받은 사례는 동구 89건이 유일하다.  
이 같은 이유는 대부분 서면으로 승인 여부를 심사하기 때문이다. 자치구별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간부 직원과 보건소장, 지역 의사 등으로 심의위원회를 꾸리는 하지만 이마저도 형식적이다.  
북구의 경우 지난 6일 하루 만에 1202건을 심사했다. 물리적으로 의사 등 전문가가 사례별로 적정성 여부를 심사·판단할 수 없는 시간이다. 이 때문에 심의위원들은 이름만 올려놓고 서류에 ‘사인’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쇼핑’을 하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같은 질환으로 여러 곳의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사소한 질환으로 물리치료, 침, 뜸 등 과도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게 대부분이다. 또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도 약은 본인이 원하는 병원에서 타는 이들도 있다. 본인 부담금이 아예 없거나 적기 때문에 본인 ‘입맛’에 따라 병원을 돌면서 진료를 받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남구 1명, 북구 5명, 광산구 2명 등 모두 8명이 무려 2000일 이상 의료급여 혜택을 보기도 했다. 북구에서는 올해도 지난 9월 말까지 2명이 2000일을 초과하기도 했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승인신청 이전에 사례들을 관리해 병원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병원을 지정해 주는 등 급여일수를 제한하기도 한다”며 “하지만 수급자들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할 경우 추후에 벌어질 사안에 대해 자치구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입장이라 어려움도 있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자의적 입원 땀 실손의료 보험금 못받는다

#### 내년부터... 표준약관 개정안 예고

의사 소견과 무관하게 자의적으로 입원해 발생한 의료비는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에서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  
시급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은 비(非)응급환자가 대형 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때 치르는 비용도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예고했다고 8

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의사 소견과 무관하게 자의적으로 입원하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통원치료가 가능하다는 의사 판단에도 입원을 자처하는 환자를 겨냥한 조치다.  
지금까지는 보장제의 사유로 ‘피보험자가 의사 지시를 따르지 않아 증상이 악화된 경우’만을 규정함에 따라 임의로 입원해 보험금을 받으려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를 양산하는 원인이 됐다. /연합뉴스

### 보험설계사 낀 3억대 보험사기 24명 적발

광주 광산경찰은 8일 조직적으로 보험사기를 벌인 혐의(사기 등)로 서모(27)씨를 구속하고 보험설계사 김모(49)씨 등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서씨 등 보험사기단은 입원치료비가 많이 지급되는 보장성 보험에 다수 가입한 뒤 실제로는 다치지 않았음에도 다친 것처럼 입·퇴원을 반복, 지난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11개 보험사로부터 3억 5000만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보험사기단 총책임 서씨는 이 과정에서 지인 등 20여명을 꾀어 각종 보험에 가입시켜주고 보험료도 매일 대납해주면서 조직적으로 보험 사기를 주도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설계사 박씨는 서씨 등을 한 번에 8개의 보험에 가입시켜주고 수천만원의 수당을 챙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는 보험사 제보에 따라 11개 보험사에서 진료기록 등을 확보한 뒤 지난 7일 서씨를 붙잡았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검찰 ‘나주 드들강 살인사건’ 원점서 재검토

검찰이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검찰이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한 용의자를 경찰이 1년만에 다시 송치했기 때문이다.  
김희준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8일 기자 간담회에서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주임검사는 강력부장이 맡는다.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와 중요도를 감안한 조치다. 김 차장검사는 “경찰에서 넘어온 기록을 검토 중이다. 추가 증거를 검토 중인데 크게 달라진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지난해 10월 무혐의 처분한

뒤 1년여 만에 사건 재검토에 나서면서 또 다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사건은 14년 전인 2001년 2월 나주시 남평읍 드들강에서 여고생 A양(당시 17세)이 성폭행을 당하고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장기미제 사건으로 남았으나 2012년 대검찰청 유전자 감식 결과 피해자 체내에서 검출된 유전자가 강도살인 죄로 목포교도소에 복역 중인 무기사 김씨의 것과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뒤늦게 김씨를 이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하고 수사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서부경찰, 상무지구 호객행위 단속 10명 적발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서 호객행위가 만연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광주일보 7일자 6면)과 관련, 경찰이 불시 단속에 나서 유흥업소 업주와 호객꾼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광주서부경찰은 8일 상무지구 유흥가 밀집지역에서 호객꾼을 고용해 영업을 한 유흥주점 업주 홍모(44)씨 등 유흥업소 업주 5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또 업주들의 지시를

받고서 손님을 업소로 꾀어 들인 이모(23)씨 등 5명도 같은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은 적발된 유흥업소 업주의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구청에 행정처분(영업정지 15일 등)을 내리도록 통보했다. 경찰은 상무지구 유흥주점 밀집지역에서 호객꾼들을 고용한 유흥업소 영업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김형호기자 khh@

### 수지 사진 무단 도용 모자 판매업체에 “1000만원 물어라”

○...광주 출신의 가수 겸 배우 미쓰에이 수지(본명 배수지)의 사진 등을 무단으로 도용해 영업에 이용한 모자 판매 업체가 1000만원을 물어줄 처지.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소9부(오성우 부장판사)는 수지가 인터넷 쇼핑몰 A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000만원의 화

해권고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해당 금액을 이달 31일까지 수지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것.  
○...수지는 이 업체가 지난 2011년 포털사이트와 ‘수지’라는 이름이 들어간 상품 키워드 검색 광고 계약을 하면서 자신의 사진을 홈페이지에 올리는 등 권리를 상업적으로 이용했다며 지난 2013년 12월 소송을 제기.  
/연합뉴스

## 문화복합시설 · 펜션 최고 장소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879-4번지 외 1필지(구, 송학랜드)
- 대 2441평, 건 882평, 임 6726평 계획관리지역
- 담양댐 하류 바로 옆, 담양리조트, 금성펜션단지 1분거리 죽녹원/금성산성/추월산/강천산/대나무 박물관/메타세쿼이아길 근접
- 과거, 박물관, 펜션, 식당, 찻집으로 운영함
- 차후 형질변경으로 공시지가 상승 가
- 관광특구로 모든 업종 개발 / 도 관광진흥자금 유치 가
- 시세/감정가 - 30억
- 매매 - 22억(법인체 인수 가)
- 현, 12억 5천만원 대출 있음(연 2.1%, 월 이자 220만원) 1년후 20억 정도 대출 가

**펜션 리모델링 후(2억원 정도 투자)  
연 3억원 이상 순수익 가**

주인직매 H. 010-3605-5000

- 광주 서구 금호동 243-6번지(구/벽스바) 서평병원 사거리 맞은편 코너
- 7층중 7층 120평, 전망최고/4면유리 모든 업종 오픈 가능
- 시세/감정가 - 7억
- 매매 - 5억 8천만원(법인체 인수 가) 대출 - 3억 6000만원(이자 130만원) 임대 - 보 5000만원에 월 300만원 임대중

**APT 밀집지역 근린상가**

## 최고 수익률!

주인직매 H. 010-3605-5000

## 화순, 전원주택부지

- 화순군 화순읍 다지리 산 12-7번지
- 대지 328평, 33필지중 1
- 동면방향, 광덕교차로에서 5분 화순 전남대병원 인근
- 기반시설 조성중 (화순군청, 12월 완공예정)
- 매매-1억 6400만원(일시불 조정가)

주인직매 H. 010-3605-5000

## 경매투자자

- ▶ 특수비법 배우실분! 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교육비/임장비 등등 1200만원
- ▶ 단독/공동투자 하실분! 자본금 - 1억원 이상 수익률 - 연 20% 이상

**(주)오천경매**  
H. 010-3605-5000